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100억 위안 클럽' 로봇 기업 수 빠르게 증가

- 올해 로봇 산업 투자 열기가 지속되며 자본이 선도기업에 집중되고 '100억 위안(한화 2조 2,837억 원) 클럽' 로봇 기업수도 빠르게 증가
 - 서비스용 로봇 선도기업 푸두로보틱스(普渡科技)는 4월에 10억 위안(약 2,283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으며 기업가치는 100억 위안을 돌파. 투자금은 기술개발, 제품 고도화, 글로벌 시장 확대, 생산능력 및 공급망 업그레이드 등에 투입할 계획
 - 휴머노이드 로봇기업 갈봇(银河通用)은 지난 3월에 25억 위안(약 5,709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으며 기업가치는 200억 위안(약 4조 5,670억 원)을 돌파
 - 갤럭시아다이나믹스(Galaxea Dynamics, 星海图)는 지난 2월 10억 위안(약 2,276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이어 4월에는 20억 위안(약 4,554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기업가치는 200억 위안(약 4조 5,288억 원)으로 성장
 - 애지봇(智元机器人), 유니트리(宇树科技), 스피리트AI(千寻智能) 등도 잇따라 기업가치 100억 위안을 돌파하며 '100억 위안 클럽'에 합류
 - 현재 로봇 완제품, 로봇 핸드, 핵심부품, 임바디드 AI 대형모델 등 분야의 수십 개 로봇기업의 기업가치가 100억 위안을 돌파
- 시장조사 기업인 IT쥐즈(IT桔子)에 따르면 5월 26일까지 로봇 분야 투자건수는 434건, 투자액은 746억 위안(약 17조 원)으로 전년 동기(235건, 221억 위안) 대비 큰폭으로 증가
 - 또한 로봇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기술력 중심에서 실제 수주 실적, 양산 능력, 상용화 가능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
 - 갈봇(银河通用) 관계자도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단일 투자 규모 확대, 산업자본 참여 증가, 실증 성과 중심 투자, 산업 생태계 연계 강화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

- 최근 로봇 제조업체들의 자본시장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2026년은 로봇기업 IPO의 원년이 될 전망. 유니트리는 6월 1일 커창반(科创板) 상장을 위한 심사를 진행, 딥로보틱스(云深处), 러쥬로 보틱스(乐聚智能)도 최근 IPO 서류를 제출

자료원 : 경제참고보

2 AR·AI 안경, 상용화 단계 진입 가속

- 2026년 세계관광도시연합회가 주최한 베이징 향산(香山) 관광포럼(6/1~4)에서 중국산 AR+AI 회의 통역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국제회의 언어서비스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남
 - 베이징 엘엘비전(LLVision, 亮亮视野)은 포럼의 공식 스마트 안경 및 번역 시스템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개막식 메인 포럼 및 6개 서브포럼에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
 - 기존 국제회의는 인력 중심의 동시통역 및 헤드셋 시스템에 의존하며 전시장 교류·비즈니스 상담 등 이동형 환경에서 한계를 보였음
 - 엘엘비전은 이번 포럼에서 AR+AI 회의 통역 시스템과 스마트 안경을 결합한 솔루션을 선보였으며, 해당 시스템은 시기업 즈푸 AI(智谱AI)와 공동 개발
 - AR+AI 번역 안경 ‘Hey2’는 100개 이상의 언어 및 방언을 지원하며 번역 지연시간은 0.5초 미만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 미국, 한국 등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
 - 업계는 AR+AI 기술이 기존 동시통역의 공간 제약을 완화하여 회의·전시회·비즈니스 상담 등 전 영역에서 언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평가
 - 스마트 안경 분야의 SoC칩과 광학 디스플레이 모듈이 소형화 및 경량화되면서 AI 오디오, AI 촬영, AR+AI 등 차별화된 스마트 안경 제품이 빠르게 등장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6년 중국 스마트 안경 출하량은 492만 대를 돌파해 전년 대비 77.7% 증가하며 본격적인 대중화 단계에 진입할 전망
 - 특히 핵심부품인 MicroLED 디스플레이 생산능력 확대와 가격 하락은 스마트 안경의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스마트 안경은 고급 국제회의용 장비에서 관광지, 호텔, 관광안내센터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
- 최근 AR 안경기업 엑스리얼(XREAL)은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서브 브랜드 ‘xbx’를 출시, 비처(VITURE)는 플래그십 XR 스마트 안경 ‘VITURE Beast’를 발표하며 차세대 XR 시장 공략에 나섰다, 레이네오(雷鸟创新)는 차세대 AI 촬영 안경 ‘레이네오 V4(雷鸟V4)’를 공식 공개할 예정

-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AR·AI 스마트 안경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소비자 시장 공략도 가속화되는 추세



자료원 : 증권일보

3 中, 온라인 출국세 환급 서비스 개시

- 베이징시는 상무부, 국가세무총국 등 6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출국세 환급 조치 최적화 및 입국 소비 확대 통지(출국세 환급 2.0 정책)’ 시행에 맞춰 전국 최초로 온라인 출국세 환급 스토어를 개설하고 호텔 내 출국세 환급 서비스를 시범 도입
- 온라인 출국세 환급 스토어는 징둥(京东) 앱을 기반으로 구축, 해외 관광객은 징둥 앱에서 ‘출국세 환급(离境退税)’ 전용 표시가 부착된 상품을 구매한 후 여권번호, 입국일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전자 환급 신청서가 자동으로 생성
- 베이징시는 왕푸징, 금융가, 귀마오 등 핵심 상권에 10개의 환급 창구를 설치하고 핵심 상권·주요 호텔·은행 지점·국제 전시회를 연계한 출국세 환급 서비스 체계를 구축
- 중앙재경대학교 교수는 이번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출국세 환급 서비스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체계로 전환되었고, 적용 범위는 상권에서 호텔까지 확대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내 쇼핑 편의성이 제고되었다고 분석
- 베이징시는 세무당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금융기관이 협력하는 플랫폼 지원 및 금융 보장 모델을 구축, 향후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
- 상무부의 5월 18일 발표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출국세 환급 매장은 총 1만 4,000개로 2024년 말 대비 4배 증가. 또한 출국세 환급·무비자 정책·결제 편의성 제고 등 정책 효과로 입국 소비액 및 관광서비스 수출은 각각 40%, 50% 증가



자료원 : 증권일보

4 지역별 민영경제 발전 지원, 영화 연계형 소비 확대 추진

- 최근 지역별로 민영경제 발전 지원, 영화 연계형 소비 확대, ‘좋은 집(好房子)’ 건설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
- 저장성 원저우시는 최근 ‘인공지능 OPC(One Person Company, 1인 회사) 준법경영 가이드라인’을 발표, 인공지능 분야 창업기업의 혁신 투자 및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
 - 5월 20일은 ‘민영경제 촉진법’ 시행 1주년으로 원저우시의 사례는 준법경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공지능 등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민영경제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대표 사례로 평가됨
- 장쑤성은 5월 20일부터 ‘장쑤성 민영경제 촉진 조례’를 시행했으며 특허권과 무형자산 등을 활용한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민영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
 - 쑤저우시 소재 하이묘오(海苗)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는 최근 핵심 특허권을 담보로 2,000만 위안(한화 약 46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연구개발을 강화할 예정
- 영화산업이 관광·문화·외식·쇼핑 등 다양한 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하며 한 편의 영화가 다양한 산업을 견인하는 신소비 생태계가 형성
 - 간쑤성 랴저우시는 ‘영화관+서점 융합 공간’을 조성하여 영화관람을 종합적인 문화체험으로 발전시킴
 - 구이저우성에서는 영화 티켓을 관광·숙박·외식 할인 혜택과 연계하여 영화 티켓이 구이저우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슈퍼 통행증’으로 부상
- 베이징시는 대학 졸업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월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장성 임대주택 3,500가구를 특별 공급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졸업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직주근접 실현에도 기여할 전망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